

키자루의 행동과 정의관에 대한 윤리적 분석

커뮤니티

문제 생성 조건

- 학습 목표: 키자루의 행동과 정의관에 대한 윤리적 분석
- 문제 유형: 개념 이해형
- 교과 과목: 국어 >
- 세부 조건: 본문 중간, 난이도 중간, 5문제

제시문

원피스의 해군 대장 키자루(본명: 보르살리노)의 '애매한 정의'는 단순히 그의 느긋한 성격이나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복잡한 윤리적 갈등과 철학적 고민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의무론(deontology)과 상황주의 윤리(situational ethics)라는 두 가지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두 관점 사이의 긴장과 조화는 키자루의 내면적 갈등과 원피스 세계관의 도덕적 모호성을 드러냅니다. 이 글에서는 키자루의 대표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그의 정의관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원피스 세계관과 현대 사회의 윤리적 딜레마를 연결 지어 살펴보겠습니다.

1. 의무론적 행동과 개인의 자유: 조직의 의무와 책임의무론은 결과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도덕적 규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는 윤리학 이론입니다. 키자루는 해군 대장으로서 세계정부의 명령을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며, 이는 그의 '애매한 정의'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 도덕적 신념, 또는 상황의 복잡성을 배제하고, 오직 조직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합니다. 행동 동기 키자루는 해군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의 일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여깁니다. 이는 세계정부의 계층적 질서를 유지하고, 해군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느긋한 말투와 태도("느~리 느~리 하게 가자구~", 만화 챕터 507)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임무 수행에서는 단호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그가 명령의

도덕적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일'로 받아들이는 실용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표적 행동사봉디 제도에서의 초신성 진압 (만화 챕터 504~512): 천룡인을 폭행한 몽키 D. 루피와 초신성들을 제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키자루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망설임 없이 압도적인 힘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조로를 레이저로 공격하며 "너무 강해서 미안하네~"라고 농담을 던지며 (챕터 510), 임무 수행과 자신의 느긋한 성격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명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해군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했음을 나타냅니다. 마린포드 정상전쟁 참전 (만화 챕터 550~580): 흰 수염 해적단과 에이스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은 키자루는, 아카이누처럼 열정적인 정의관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히 레이저를 쏘며 루피와 마르코 같은 적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그는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해군의 이념을 수행했지만, 그의 태도는 감정적 몰입이 아닌 기계적인 임무 수행에 가까웠습니다 (챕터 568). 의무론의 한계와 결과키자루의 의무론적 행동은 해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정부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개인적 자유와 도덕적 판단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공격하며 천룡인의 부당한 권력을 간접적으로 보호한 그의 행동은, 세계정부의 부패와 모순을 외면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키자루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로봇'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그 시스템의 도덕적 결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의 느긋한 태도는 이러한 모순에 대한 냉소적이거나 회피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2. 상황주의 윤리적 고뇌와 정의의 한계: 인간적 번민상황주의 윤리는 고정된 규칙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키자루의 느긋한 태도와 모호한 행동은 때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그의 인간적 면모와 내면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특히, 개인적 관계와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의 '애매한 정의'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고뇌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행동 동기상황주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나 '공익'을 기준으로 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키자루의 경우, 그의 행동은 상황주의적 이상을 완전히 따르기보다는, 의무론적 틀 안에서 개인적 감정과 상황적 맥락이 충돌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는 해군의 명령을 우선시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 인간적인 번민을 드러내며, 이는 그의 정의관이 단순히 조직의 명령에 얽매이지 않는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대표적 행동에그 헤드 편에서의 베가펄크 제거 임무 (만화 챕터 1089~1100): 키자루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베가펄크를 제거하라는 오로성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명백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챕터 1091에서 그는 베가펄크와의 과거를 회상하며 슬픈 표정을 짓고, 선글라스를 고쳐 쓰며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명령

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친구를 잃는 비극적 상황에 고통받는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의 행동은 느리고 망설이는 듯한 뉘앙스를 띠며, 이는 상황주의적 고뇌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사황들과의 대립에서의 유연성: 키자루는 사황 같은 강력한 적과 대면할 때, 아카이누처럼 전면전을 추구하지 않고 상황을 '적당히' 관리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와노쿠니 편에서 루피와 카이도를 상대할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챕터 1028~1030). 이는 그가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며 불필요한 희생을 피하려는 실용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주의의 한계와 결과키자루의 상황주의적 고뇌는 그의 행동에 인간적 깊이를 더하지만, 그는 여전히 해군의 틀 안에서 행동합니다. 이는 그가 상황주의 윤리의 이상—즉,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에그 헤드에서의 베가펑크 사건은 그의 고뇌가 개인적 감정과 조직의 명령 사이에서 타협을 찾으려는 시도였음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애매한 정의'는 단순한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의 제약과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현실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3. 키자루의 '애매한 정의'와 원피스 세계관키자루의 정의관은 원피스 세계관의 핵심 주제—정의, 자유, 권력—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원피스는 세계정부와 해적, 혁명군 등 다양한 세력이 각자의 '정의'를 내세우며 충돌하는 세계를 그립니다. 키자루는 이 복잡한 세계관에서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위치를 점하며, 그의 행동은 시스템과 개인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정부의 부패와 키자루의 역할세계정부는 천룡인과 오로성을 중심으로 한 부패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며, 해군은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키자루는 이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믿지만, 그의 느긋한 태도와 에그 헤드에서의 고뇌는 시스템의 모순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천룡인의 부당한 권력을 보호해야 했던 샤붕디 제도 사건은, 그가 세계정부의 부패를 간접적으로 지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다른 해군 대장들과의 비교키자루의 정의관은 아카이누와 아오키지의 그것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아카이누 (절대적 정의): 아카이누는 해군의 '절대적 정의'를 맹신하며, 해적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마린포드 전쟁에서 그는 에이스를 처형하고 루피를 끝까지 추격하며 (챕터 573~574), 개인적 신념을 조직의 명령과 완전히 일치시켰습니다. 이는 의무론의 극단적 형태로, 도덕적 유연성을 배제합니다. 아오키지 (개인의 신념): 반면, 아오키지는 개인적 정의관을 우선시하며, 결국 해군을 떠나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챕터 793). 그는 세계정부의 부패를 인지와, 이를 거부하며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는 상황주의 윤리에 더 가까운 태도입니다. 키자루 (애매한 정

의): 키자루는 이 둘의 중간지대를 점합니다. 그는 아카이누처럼 맹목적으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아오키지처럼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그의 '애매한 정의'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의 제약과 개인의 도덕적 갈등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타협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상징적 표현: 빛의 인간키자루의 능력인 '빛의 열매'는 그의 정의관과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빛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잡히지 않고 모호한 속성을 가집니다. 키자루의 행동 역시 이처럼 '잡히지 않는' 성질을 띠며, 독자로 하여금 그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그의 '애매한 정의'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복잡한 세계관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구축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4. 심화 질문: 키자루의 정의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키자루의 행동과 정의관을 분석한 후, 그의 내면과 원피스 세계관의 더 큰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화 질문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들은 독자로 하여금 키자루의 선택을 넘어, 정의와 자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합니다. 키자루는 옳은 선택을 했을까?

문제

문항 1. 위 글에서 제시된 키자루의 '애매한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의 느긋하고 무관심한 성격에서 비롯된 단순한 게으름을 의미한다.
- ②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여 해군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는 태도를 말한다.
- ③ 정해진 규칙과 의무만을 따르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는 원칙이다.
- ④ 조직의 명령과 개인의 윤리적 고뇌 사이에서 타협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복합적인 정의관이다.
- 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유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독자적인 정의를 뜻한다.

문항 2. '의무론적 행동과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키자루가 샹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진압한 행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천룡인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려 했다.
- ② 결과적으로 세계정부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지했다.
- ③ 명령의 도덕적 정당성을 면밀히 따져 본 후 임무를 수행했다.

- ④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해군 대장으로서의 임무에만 충신했다.
- ⑤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희생을 피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문항 3. 키자루가 에그 헤드 편에서 베가펑크 제거 임무를 수행할 때 보인 행동에서 추론할 수 있는 윤리적 고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계정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 ② 오랜 친구인 베가펑크를 제거해야 하는 개인적 감정과 조직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 ③ 최대한 많은 희생을 줄이고자 하는 공익적 목표를 우선하여 임무를 재고했다.
- ④ 베가펑크가 가진 지식이 인류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명령을 거부했다.
- 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항 4.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의 정의관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카이누는 해군의 '절대적 정의'를 맹신하며 도덕적 유연성을 배제하는 의무론적 태도를 보인다.
- ② 아오키지는 개인적 정의관을 우선시하여 세계정부의 부패를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상황주의 윤리에 가깝다.
- ③ 키자루는 아카이누와 아오키지의 중간 지점을 점하며, 시스템 안에서 개인적 감정과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 ④ 아카이누는 마린포드 전쟁에서 루피를 끝까지 추격하며 개인적 신념이 조직의 명령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다.
- ⑤ 키자루의 '애매한 정의'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의 제약과 개인의 도덕적 갈등 사이에서 타협한 결과로 해석된다.

문항 5. 키자루의 능력인 '빛의 열매'가 그의 '애매한 정의'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빛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모든 적을 섬멸하려는 그의 절대적 정의관을 드러낸다.
- ② 빛이 항상 진실만을 비추듯, 그가 오직 정의로운 길만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③ 빛처럼 잡히지 않고 모호한 속성을 지녀, 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 ④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처럼, 세계정부의 부패를 밝히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 ⑤ 빛이 특정 방향으로만 나아가듯, 오직 조직의 명령에만 충실하려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정답 및 해설

문항 1 해설

정답: ④

해설

글의 서론과 각 이론 분석 후의 결론에서 키자루의 '애매한 정의'가 단순히 느긋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의무론적 행동과 상황주의적 고뇌가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제약과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현실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설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항 2 해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의무론적 행동과 개인의 자유' 섹션에서 키자루는 '개인적인 감정, 도덕적 신념, 또는 상황의 복잡성을 배제하고, 오직 조직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샤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진압한 것은 이러한 의무론적 태도를 대표하는 행동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문항 3 해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상황주의 윤리적 고뇌와 정의의 한계' 섹션에서 키자루가 에그 헤드 편에서 베가핑크 제거 임

무를 받자 '명백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친구를 잃는 비극적 상황에 고통받는 인간임을 보여줍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감정과 조직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문항 4 해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다른 해군 대장들과의 비교' 섹션에서 아카이누는 '개인적 신념을 조직의 명령과 완전히 일치시켰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 '개인적 신념이 조직의 명령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항 5 해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상징적 표현: 빛의 인간' 섹션에서 '빛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잡히지 않고 모호한 속성을 가집니다. 키자루의 행동 역시 이처럼 '잡히지 않는' 성질을 띠며, 독자로 하여금 그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빛의 모호한 속성이 키자루의 정의관의 모호성과 연결됨을 나타냅니다.

AI 추천 학습 자료

- namu.wiki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

[AUZIYQFE8drwmhDZatYD9pnBAUNxcgAcyD3IdDvQcqxND5xv8SUoWSw8J9qT3qiTNcUS8zURTGp826fz2F3PIysJEpqYhccQMsWGPIp4nmp75l5tTv8LOdKIa1cY5maq4fVkJqQs8HR8aYpRiBMZg5Sqepm78Nu8](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FE8drwmhDZatYD9pnBAUNxcgAcyD3IdDvQcqxND5xv8SUoWSw8J9qT3qiTNcUS8zURTGp826fz2F3PIysJEpqYhccQMsWGPIp4nmp75l5tTv8LOdKIa1cY5maq4fVkJqQs8HR8aYpRiBMZg5Sqepm78Nu8)

- **namu.wiki**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FqIJ4qJrkdKch-8fPleXMWOUAJ9sQaWAelxUNfniiagiRB5Wm6e5g5oxTNzVSycOcmN4LBFZgB8jK GftjigKe299zAs3PxzX6ztl4SCzERN5BJOwDOfbnTlCy9VXmbyUxU-LawMqIFqwtEGCJv42ho9hU_bZ80UNS1yk9Dj3L6_nd-mIEHv6c0WsI80xiRKiarkxVFmPQ3JXQnA==

- **youtube.com**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EShtVVvtTOMuNbMPxzHs_MSc9_1bmmYHyU2jt37BkYE3rF48FpG3wB1r_0v1mgzjWUnDtMQoTjZ jBr_KNei507zefy5y40aDEBJTUD3LeEpNUSuu1cgEmwZQa9jdIYI_pFGBHsEla6LecY_aTmTlK8qzw6mV5 ExytXa3Q4-rd4fA==

- **youtube.com**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F3gopyGKbDiZqnMOenzZ7OKKSqBVLBWK_rD9VDfIAPbxX3u0FLz4Me1KIARsiRixuMqcoL_sPeB ltL6fnfJ9qGwQmOKUJ-Fw3BM8xhqEy6lK8sOCSt1E4yIEYQNGUypYs1t-FNuo8=

- **dcinside.com**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FHZCiMiP6ZiWsTrbBMUuknU9AnHvJXsX-QhPVTZQV7gP6jnoPexJw1CuvJmWO2Io13cQDh_73fQ3ZsMOHqNZCtrmKWeLjWopLn-6m97aykY7LOOv FELSLr-yVGOjRa6BWzeuG_6syu8TfDYM3EX1M7H-BUdpT2MQ==